

날씨를 아는 자가 승리한다 ③

글 장영주

물음은 배움의 첫걸음이다

묻는 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음을 통해 생각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묻고 알 때까지 책에서 찾아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모르면서 묻지 않고 찾아보지도 않으며 아는 척 넘어가면 영영 알 길이 막혀 공부에 진전이 없습니다. 물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아는 이에게 묻기도 하고 아는 이가 모르는 이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물음도 있는가 하면 또 지식의 정도를 알아 보는 물음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소싯적에는 이런 물음도 있었습니다.

고누를 둘 줄 아느냐?

장기를 둘 줄 아시오?

바둑을 둘 줄 아십니까?

이 물음에서 우리는 하나의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놀잇감의 난이도에 따라 하댓말에서 존댓말로 옮겨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의 난이도에 따라 그 일을 수행한 이에 대한 지위와 급여가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겠지요.

저는 위의 물음을 본따 독자들에게 날씨에 대하여 이리 묻습니다.

날씨가 뭔지 아느냐?

날씨를 읽을 줄 아시오?

날씨를 내다볼 줄 아십니까?

이 물음은 날씨를 공부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날씨에 대한 지식의 수준을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든 계단을 오르듯 단계를 밟아서 하기 마련이므로 날씨에 대한 공부도 첫째 물음을 깨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물음에 대한 공부

날씨 공부의 첫걸음은 날씨가 무엇인지를 아는 일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날씨 과학>은 1, 2부로 나뉘어 있는데 그 1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12개의 장으로

짜여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다 하나 같이 날씨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물음들입니다. 이 궁금증을 풀다면 우리는 날씨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날씨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상학, 대기 과학은 수학, 물리학, 화학, 해양학, 전산학 등을 아우르는 과학의 종합선물상자와 같은 것이어서 일반인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독일의 과학 저널리스트로서 평소에 독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해 온 경험을 살려 까다로운 날씨에 얽힌 복잡한 과학적 사실을 누구나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또 이 책에는 일반 번역서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의 요소 요소에 기상청 예보정책과장인 유희동 박사의 해설을 싣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시중 서점에는 날씨에 관해 이렇다 할 변변한 읽을거리가 없었던 차에 이 책이야말로 뚝달리기꾼들에게는 가뭄에 단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날씨란 무엇인가?
2. 날씨가 사는 곳, 대기
3. 모든 것은 태양에서 시작되었다.
4. 바람은 왜 부는가?
5. 바다는 날씨를 춤추게 한다.
6. 커다란 산맥이 날씨에 미치는 영향
7. 고기압 대 저기압.
8. 공기 덩어리의 힘겨루기.
9. 자연의 공습, 회오리바람
10. 비와 구름의 이야기
11. 날씨를 변덕쟁이로 만든 뇌우
12. 날씨를 이해하는 핵심 단서들

위에 나열한 각 장의 제목에서 나타나듯 그 내용들도 매우 쉽게 서술하고 있어 누구나 거부감 없이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면할 때 첫 인상이 좋지 않으면 좀처럼 사귀기 어렵듯이 책도 첫 장을 펼쳤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 싶으면 그 책은 끝까지 독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책은 그렇지 않고 친근감이 느껴진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자! 우선 제목만 보아도 군침이 돌지 않은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요트를 떠나야 합니다. 왜냐고요? 당신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지킬 의무를 포기한 거나 다름이 아니어서 단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